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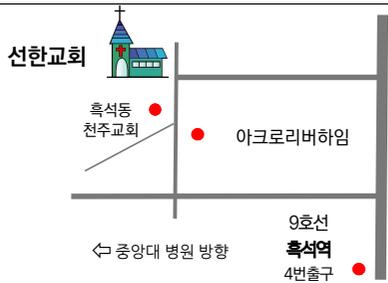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b>주 일 예 배</b>	1부 주일 오전 9:30	<b>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b>		
	2부 주일 오전 11:00			
<b>오 후 예 배</b>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b>중 국 어 예 배</b>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b>수 요 예 배</b>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b>금 요 기 도 회</b>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b>새 벽 예 배</b>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b>셀 가족 모임</b>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b>사 역 자</b>	담임목사 임 춘 배	<b>국 내 선 교 사</b>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b>해 외 선 교 사</b>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진만	<b>협 력 교 회</b>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b>은 퇴 장 로</b>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b>장 로</b>	박 영 근 (집사장)	<b>관 리 장 로</b>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b>500/50 교회</b>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39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6장 (통일찬송가 14장)
교 독 문	교독문 29 (시편 65편)
찬 양 과 경 배	325장 (통일찬송가 359장)
대 표 기 도	윤호중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6장 1~5, 16~18절
설 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잠3:1-20) 임춘배 목사

###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예배 안내          | 1. 주일예배: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br>(11시 예배영상 제공)<br>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br>(영상제공하지 않음)<br>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br>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br>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br>-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 2. 개인경건훈련 안내      |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br>3. 성경일독하기: 일독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세요.<br>(일독 기념품 증정)<br>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
| 3. 코로나19<br>기도 제목 | 1.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br>2.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중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br>3.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완치와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br>4.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회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br>5. 코로나 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기도합니다.<br>6. 코로나 19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
| 4. 사무실 휴가일정       | 8월 10~14일 (손석규 장로, 김진만 전도사)  |

### 한주간의 기도제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매일의 삶 속에서 피흘려 죄와 싸우는 치열함을 회복하기를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찬송 : '어지러운 세상 중에' 340장(통 366)

본문 : 다니엘 8장 15~27절

다니엘이 새로운 환상을 봅니다. 불난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을 상징하고 불난 숫염소는 헬라의 왕을 상징합니다.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 있는 두 뿔 중 '나중에 난 긴 뿔'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3절) 그는 BC 336년 마케도니아 왕이 돼 332년 시리아와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331년엔 바빌론을 정복했고 330년엔 페르시아제국까지 끝장내고는 죽었습니다. 왕이 되고 7년 만이었습니다.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8절) '현저한 뿔 넷'은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넷으로 나뉜 나라들입니다. 마케도니아를 비롯해 헬라 소아시아 시리아, 인더스 지역의 바빌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이집트를 뜻합니다. 9절의 '한 뿔'은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셀레우코스 왕조이고, '작은 뿔'은 안티오커스 4세입니다. 그는 스스로 신이 돼 정복 전쟁을 펼치고 헬라 문명을 강요합니다. 동쪽과 남쪽(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을 치고 '영화로운 땅' 유대와 예루살렘을 파괴하며 수많은 이를 죽였습니다.

이처럼 핍박받는 시대를 사는 성도의 질문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한 천사가 이렇게 질문하고, 다른 천사가 "밤낮 이천삼백 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라고 답하는 소리를 듣습니다.(13~14절) 극심한 고통과 박해의 기간이 '3년은' 또는 '3년만' 지속하리란 묵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묵시적 환상으로 알게 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포악한 박해자가 나타나고 고난이 극심해질수록 오히려 끝이 가깝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말입니다.(23절) 또 하나는 이런 권력은 모두 한때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믿으란 것입니다. 속이는 데 능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권세일수록,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끝내 망하고 말 것"입니다.(25절) 이 환상은 분명 희망을 전하는 묵시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교만한 제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미래의 동포들이 겪을 고통을 알게 됐기에 그만 알아놓고야 맙니다.(27절) 폭력으로 뭔가 이루겠다는 인간 욕망이 계속되는 한, 패권 다툼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약한 이들의 고통도 여전할 것이고, 우리는 힘 가진 세력보다는 힘없는 쪽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힘을 휘두르는 이를 부러워하거나 욕하면서 닳아선 안 됩니다. 이들이 심판받을 때 함께 휩쓸린다면, 그보다 한심하고 불쌍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과 부를 추구하는 걸 해결책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힘이 겸손과 함께일 때는 의로울 수 있지만, 힘을 휘두르며 자비와 겸손을 잃지 않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힘보다 자비와 겸손을 구하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과 오랫동안 함께하십니다.

제목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마6:1-5,16-18)

서론

경건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게 해야 합니다.

#### 1. '은밀하게 하라'의 의미

- (1) 경건생활: 구제, 기도, 금식의 문제
- (2) 경건생활의 기본원리: ①항상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행한다는 의식  
②자기에게 주목을 끌기위해 행해서는 안됨 ③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 (3) 내가 영광 받은 것은 상급이 없다(2,5,16절).

본론

- (4)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4,6,18절)

#### 2. 교훈

- (1)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고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 (2)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고 있지 않는가?
- (3)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행한적이 있는가?

결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윤호중 장로	박영근 장로

찬양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본문	로마서 8:26-30
	<p>성도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하시며 도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시련에도 낙망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세력도 성도를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p> <p>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의 선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에 택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p>
묵상질문	1. 가장 최근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과 기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 304/통 404)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2008년 5월 12일분, 중국의 쓰촨성에서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공식적인 피해 규모는 사망자 약 69,000명, 부상자 약 374,000명, 행방불명자 약 18,000명, 재산 피해자 누계 약 4.616만 명이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인명 구조 과정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수십 톤의 잔해를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던 위만만 씨가 발견됐습니다. 몸을 웅크린 그녀의 품 안에는 젖을 먹다 잠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호흡은 이미 끊겨 있었고, 아이와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는 문자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는 쏟아지는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막아 아이를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p> <p>인간의 사랑 중 최고의 사랑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p> <p>누군가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경험, 혹은 누군가에게 큰 사랑을 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p>
말씀 나누기	로마서 8:31~39
묵상포인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의 구원은 보장받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과 고난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의지하면 고난과 박해와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핏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승리는 넉넉한 승리,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맞본 사람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31~34절)
적용하기	일상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다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힘을 얻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보잘것없는 죄인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삶에서 맞닥뜨리는 고난과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를 맛보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
본문	로마서 9:25-33
	<p>하나님께서서는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시어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모든 민족을 망라한 것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조건을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미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창12:3)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p> <p>하나님께서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계획 중에 이방인들의 구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 번 예언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호세아의 예언을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p> <p>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의 법에 이르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말씀은 부딪히는 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자력 구원의 교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사단의 죄임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구원의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구원의 반석은 인간들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믿음의 반석인 것입니다.</p>
묵상질문	1.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본문	로마서 8:31-39
	<p>바울은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임을 밝혔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무엇이든지 못 주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를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근거가 됩니다. 사단이 정죄하여도 하나님에서 의인으로 인정하실 때 성도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의 주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성도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고 오직 담대한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p> <p>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음이 당연합니다.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끊을 피조물은 없기 때문입니다.</p>
묵상질문	1.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한 경험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본문	로마서 9:1-13
	<p>바울은 자신의 형제 곧 유대인들로 인한 자신의 근심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비록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는 처지에 있었지만 그들도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울은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복음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입장에서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p> <p>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 비하여 신앙적으로 특별한 것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앙 속에서 태어났고 신앙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죄악 중에서 불러내시어 새로운 민족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에 대해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p> <p>이스라엘 민족은 조상적부터 하나님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예표로 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약속으로 그들이 대망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구원주로서 만물의 찬양을 세세에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려는,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p>
묵상질문	1.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본문	로마서 9:14-24
	<p>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면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창12:2)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고 이삭에게도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더 발전적으로 이행하셨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요셉을 통한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p>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받는 자의 조건이 되는 기준을 필요치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의지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서의 구원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p> <p>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선택에 있어서 그러한 선택이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결코 불의함이 없으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는 똑같은 흙을 가지고도 어떤 것은 귀히 쓰일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히 쓰일 그릇으로 만들 주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토기장의 선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하물며 토기가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 불의하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 마치 토기가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 대하여 불평하며 항의하는 것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주권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p>
묵상질문	1.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불만을 가져본 기억이 있나요?
오늘의 기도	